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1 “우리도 땀다”



서정복 사무처장(뒤쪽 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전남도체육회 직원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올 전남체전 역대 최고대회로 기필코 종합 2위 이루겠습니다”

■ 전남도체육회

“2008년 전남에서 열리는 제89회전국체전을 역대 최고의 체전으로 치르기 위한 각오를 다지면서 달리겠습니다.”

서정복(60)사무처장을 비롯한 전남도체육회 직원들이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최고의 대회로 치르고, 종합 2위로 역대 최상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전남체육회 직원들은 올 10월에 여수를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역대 최고성적인 종합2위를 위해 하루 해가 짧은 정도로 등반서주하고 있다.

서정복 사무처장은 “광주·전남 분리 이후 광주가 지난해 광주체전에서 종합3위의 성과를 올렸는데 전남도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손님맞이·경기진행 등 만반의 준비”

서정복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손님맞이에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매끄럽고 사고없는 경기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해 목표로 사무실을 옮겨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89회 체전을 준비중인 전남도체육회 직원들은 한결같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회로 세번째 참가

하는 3·1절 마라톤대회를 통해 새봄을 열며 직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

환갑을 바라보는 서정복은 조기축구와 함께 매일 1만보 걷기를 생활화해 40대의 젊음을 자랑하고 있어 10km는 뛰어야 한다는 직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김용봉(58)총무부장과 김남기 운영부장(58)은 매우 산행으로 다져진 체력을 이번 대회에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올 사무실 목표 이전 새 도약 다짐

육상 국가대표 단거리 선수 출신인 김상민(51)훈련부장은 육상인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으며 유일하게 체육학과를 졸업한 박경채(37)씨는 유도선수 출신으로 주위에서 하프는 뛰어야 한다고 등을 때릴고 있다.

친화력이 뛰어난 정희진(38)씨와 인문학 출신 공갑석(42)씨는 각각 만능스포츠 맨으로 이번대회 상위에 랭크된 뒤 내년에는 하프에 도전해 볼 계획이다. 야구선수 출신 이정호(41)씨와 축구광 남기수(46)씨도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을 자랑할 계획이고, 이순혜(여·33)씨와 정현숙(여·33)씨는 암마선수의 파이팅을 보여줄 계획이다.

마내 박수현(여·28)씨는 건강미인의 체력을 보여 줄 계획. 조신영(30)씨는 광주 상무 축구단에서 다져온 체력을 자신하고 있고, 전남체육회 공식 체력1위 이광구(44)씨도 상위권 입상을 기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허정무호 “국내파 저력 보여달라”

실 연휴 첫날인 지난 6일 통쾌한 첫 승리를 신고하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본선을 향해 패조의 스타트를 한 허정무호가 지난 9일 국내외 위주로 재조립했다.

이번 소집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인방’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설기현(풀럼), 이영표(토트넘)가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인 소속 팀에 합류하기 위해 제외됐다. 또 해외파로 분류해야 할 김두현(웨스트브롬)과 러시아 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오병석도 빠졌다.

따라서 국내 선수와 일본 J-리그에서 뛰게 된 김남일(벤티스 고베) 등 대표팀 21명이 다시 모여 10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허정무호의 눈앞에 다가온 시합대는 17일

17일 동아시아축구선수권 대비

10일부터 훈련... 해외파는 제외

지난 6일 투르크메니스탄전 4-0 대승

부터 중국 충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선수권대회다. 동아시아대회는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한국과 같은 조로 편성된 북한을 포함,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3강이 모두 참여한다.

이에 따라 해외파 없이 다시 시합대에 오르게 될 허정무호가 조직력을 가다듬고 동북아 축구 맹주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

기에 놓여 있다.

국내파로 치른 지난 달 30일 칠레전에서 졸전 끝에 0-1로 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해외파와 국내파의 기량 차이를 줄이는 일도 급선무이다. 허 감독은 ‘2진’이라고까지 언급했지만 국내파 라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동아시아대회를 앞두고 국내파 수준을 한계점 끌어올리기 위한 허 감독의 전략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허정무호는 지난 6일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한국과 같은 조로 편성된 북한을 포함,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3강이 모두 참여한다. 이에 따라 해외파 없이 다시 시합대에 오르게 될 허정무호가 조직력을 가다듬고 동북아 축구 맹주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

“애헤드볼선수권, 세계대회 예선 인정 안해”

국제연맹 “공정한 판정 담보 안돼”

국제애헤드볼연맹(IHF)이 오는 17일부터 이란 이스파하에서 열리는 아시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결과를 2009년 크로아티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예선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핸드볼협회에는 “IHF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아시아선수권에서 공정한 판정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10일 전했다.

핸드볼협회에 따르면 IHF가 이러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AHF가 심판 배정을 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IHF의 결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IHF는 이번 대회 감독관에 알렉산더 코즈코프(러시아) 경기분과위원장과 유럽심판 2명을 파견하고 코즈코프 위원장이 심판 배정의 전권을 행사하겠다고 AHF에 통보했지만 AHF가 이를 거부했다.

IHF는 세계대회 출전권 3장이 걸린 이번 대회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아시아 예선을 따로 치르기로 했다.



보비 있음에... 대한항공 역전승

10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대한항공 경기에서 대한항공 보비가 강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3-2로 역전승했다.

연필뉴스



11일(월)

▲2008 챔피언스투어 알리안츠 챔피언십

FR(04 : 00-SBS골프)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11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12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12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13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14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15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16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17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18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19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20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21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22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23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24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25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26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27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28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29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2월 30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1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2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3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4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5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6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7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8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9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10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11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12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13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14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15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16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17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18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19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20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21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22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23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24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25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26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27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28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29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30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3월 31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1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2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3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4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5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6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7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8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9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10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11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12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13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14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15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16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17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18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19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20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21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22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23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24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25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26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27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28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29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4월 30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5월 1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5월 2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5월 3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5월 4일(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5월 5일(화)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5월 6일(수)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5월 7일(목)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5월 8일(금)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5월 9일(토)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

5월 10일(일)

▲2008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